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CHARTER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COMMUNITY



ASEAN-KOREA CENTR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서문

왜 아세안 4C인가?	6
-------------	---

아세안 헌장 ASEAN Charter

방콕 선언에서 아세안 헌장까지

방콕 선언: 아세안의 탄생	15
아세안 방식에 의한 발전	16
아세안의 확대와 지역 정체성	18
아세안의 주요 원칙	19
아세안의 조직 구조	20

아세안 공동체 ASEAN Community

천천히 가지만 함께 만드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아세안 공동체의 지향점	25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 2025	29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	3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	40

아세안 연계성 ASEAN Connectivity

더 긴밀하고 가까운 아세안

아세안 연계성의 배경과 정의	47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 추진 결과	48
아세안 연계성 2025와 10대 트렌드	52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5대 전략과 15대 핵심 이니셔티브	54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6대 이행 전략	59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이행 일정표	60

아세안 중심성 ASEAN Centrality

세계 속의 아세안 : 지역협력의 중추 역할

아세안 대화상대국 ASEAN+1	66
아세안+3, APT ASEAN+3	67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70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71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	72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주요 지표	74
연혁	76
약어	78
참고문헌	80

왜 아세안 4C인가?

2017년은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아세안은 1967년에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지역 협의체로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등 5개국이 평화와 안정 및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창설한 아세안은 2015년 12월 회원국 10개국, 인구 6억 4천만, 국민총생산 2조 6천억 달러의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키면서 또 다른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로 각광을 받으며 출범한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사태, 브렉시트^{Brexit} 등 일련의 사태로 흥역을 치르는 반면, 느리게 진행되는 것만 같던 아세안은 오히려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그 특유의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고수하여 10개국 회원국 모두가 합의^{consensus} 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록 10개국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다소 소모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유럽연합보다 단합을 유지하는 아세안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세안의 놀라운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책은 아세안 성장의 비결을 4C, 즉 Charter, Community, Connectivity 및 Centrality 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Charter는 2008년 발효된 아세안 헌장을 의미하며, 동 헌장 전문^{Preamble}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아세안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헌장은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 등 아세안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권불가침, 무력사용 금지, 내정불간섭 등 아세안의 가치와 규범 및 원칙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세안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도달하기 위한 방안들을 규정한 이 헌장은 아세안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서입니다.

Community는 아세안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세안은 2003년 아세안 공동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아세안 발전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세안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결과물로 지난 2015년 12월 31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공동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하여 2025년까지 달성할 세 개의 공동체 각각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 단계 높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보여 주듯이, 빨리빨리는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세안의 저력입니다.

Connectivity는 아세안 연계성을 의미하며, 크게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으로 구분됩니다. 연계성은 아세안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2016년 발표된 '아세안 연계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2025'는 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구체적인 연계성 실현을 위해 동 마스터플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entrality는 아세안 중심성을 의미하며, 아세안 헌장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아세안이 대외 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 원리이자 운영 준칙입니다. 이는 지역협력 및 공동체 건설과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아세안이 중심이 되고, 아세안이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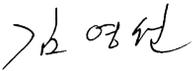
아세안은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 그리고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아세안과의 협력 증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 창설 50주년인 2017년을 기념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017년 8월 개최된 '한-아세안 관계 조망 국제회의'는 지난 50년간의 한-아세안 외교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대아세안 외교 추진 전략 및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세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아세안과 진솔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아세안센터가 이번에 발간하는 『4C로 이해하는 아세안』이 우리 국민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아세안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아세안 우호 관계에 보다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김 영 선



Why ASEAN 4Cs?

2017 is a momentous year,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ASEA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7, ASEAN has achieved an unprecedented and remarkable accomplishment as a regional cooperative body.

ASEAN was initially established by 5 countries –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eace, stability, and growth, as well as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December 2015, ASEAN reached another milestone by launching the ASEAN Community, comprised of 10 member states, with a total population on 640 million and total GDP of USD 2.6 trillion.

While the European Union, a representative regional community that had received much global attention during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has lately been facing difficulties with events such as Brexit, ASEAN, which seemed to have been making slow progress is rather showing more steady development.

ASEAN is distinctive in terms of its decision-making process – by consensus among all 10 member states, which is also known as the ASEAN way. Although this process of making decisions may seem demanding, the greater unity shown by ASEAN compared to the EU after all these decades hints a sense of historical irony.

Then, what is the driving force behind ASEAN's remarkable progress? This book seeks the key to ASEAN's development through the 4Cs, namely the Charter, Community, Connectivity, and Centrality.

The first C refers to the ASEAN Charter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8. As mentioned in the preamble of the Charter, it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ASEAN. The Charter regulates ASEAN's

objectives in the areas of peace,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It also codifies ASEAN values, norms, and principles such as respect for sovereignty,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and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member states. The Charter, which specifies the goals ASEAN should pursue and reach, is a key document to be addressed in order to understand ASEAN.

Community refers to the ASEAN Community. ASEAN proposed the idea of an ASEAN Community for the first time in 2003, marking a significant moment in the history of ASEAN. To realize such a community, ASEAN members went through continuous negotiation processes, and as a result three pillars of the ASEAN Community were launched on 31 December, 2015: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Through the 'ASEAN Community Vision 2025' adopted by the ASEAN leaders, the vision and blueprints to be accomplished by 2025 were proposed for each of the three Communities, while efforts toward integration on a higher level are being made. As these past events demonstrate, slowly but steadily, ASEAN is showing its potential and capability.

Connectivity refers to connectivity within ASEAN, and specifically, can be described as physical, institutional, and people-to-people connectivity. As connectivity is a crucial factor for establishing the ASEAN Community,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MPAC 2025)' is regarded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ASEAN Community Vision 2025'. ASEAN is seeking ways to implement the MPAC 2025 to realize comprehensive connectivity.

Centrality, also known as ASEAN Centrality, is the basic principle and rule of operation in ASEAN conducting its external relations, as indic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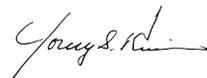
in Article 41 of ASEAN Charter. It states that, in conducting operation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related to regional coope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ASEAN should be the center and the driving force, emphasizing ASEAN Centrality. ASEAN is emerging as a new region of prospect for Korea's diplomacy. Hence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cooperation with ASEA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not only for diversifying Korea's diplomacy, but also for strengthening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arena as a middle power.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ASEAN, the ASEAN-Korea Centre organized various events in diverse areas including economics, culture, and tourism. In particular, th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EAN-Korea Partnership' held in August provided an opportunity to look back into the overall relations between ASEAN and Korea for the past 50 years, and seek Korea's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toward ASEAN.

These efforts have a common goal of increasing Korea's awareness on ASEAN, as having a correct understanding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everything. Only with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region, Korea will be able to build and maintain a genuine partnership with ASEAN. We hope the latest edition of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will be of great help to improving our readers' understanding on ASEAN.

We thank all the support given to the ASEAN-Korea Centre, and we assure you that we will keep up with our activities in building a lasting and genuin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Kim Young-sun
Secretary General of ASEAN-Korea Centre





ASEAN CHARTER



1

ASEAN CHARTER

아세안 헌장

방콕 선언에서 아세안 헌장까지

지난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국 간의 연합으로 시작한 아세안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현재의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회원국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아세안은 동남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아세안은 갈등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의 정치·안보적 이해를 도모하며, 경제통합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 왔다.

아세안은 2008년 아세안 헌장을 공식 발표,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향한 비전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구현하여 지역 기구로서의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통해 평화, 번영과 진보를 향한 여정에 큰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1967년 발족 선언 5개국서명

방콕 선언: 아세안의 탄생

베트남 전쟁 등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냉전 구도가 심화되던 1967년 8월 8일, 태국에 모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 5개국 외무장관들이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아세안 선언’에 서명하면서 아세안이 탄생하였다.

‘방콕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문에서 아세안은 “경제·사회·문화·기술·교육과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과 유엔 헌장의 원칙에 입각한 정의와 법치의 존중,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촉진”을 결의하였다.

대부분 신생 독립국으로 국가 기틀을 다져야 했던 회원국들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아닌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아세안 선언은 국익의 조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세안의 날

아세안 국가들은 8월 8일을 ‘아세안의 날(ASEAN Day)’로 정하고 아세안 창설을 기념하고 있다.

아세안 설립의

목표와 목적:

아세안 선언(방콕 선언)

- 경제 성장, 사회 진보와 문화 발전
- 지역 평화와 안정
- 경제·사회·문화·기술·과학·행정 분야의 협력
- 교육과 연구에서의 상호 협력
- 농업·산업·무역·교통·통신·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 동남아시아에 대한 연구 촉진
-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아세안 깃발과

엠블럼

아세안 로고는 안정, 평화, 화합, 역동성을 상징한다. 파란색은 안정, 빨간색은 용기와 활동성, 흰색은 순수함, 노란색은 번영을 의미하며, 이는 각각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표한다. 그리고 중간의 노란색 벚단 모양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우정과 협력 증진에 대한 바람을 나타낸다.



아세안 방식에 의한 발전

‘아세안 방식(ASEAN Way)’은 현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인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아세안의 국내외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영향이 반영된 아세안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과 이행 방식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아세안은 ‘아세안 방식’에 따라 발전해 왔다.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의사결정은 협의와 합의의 원칙을 따랐다. 상대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협상보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의 제도와 주요 원칙들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1971년에 채택한 ‘평화·자유·중립 지역선언(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은 역외 강대국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세안을 표명했다. 1976년 개최된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결과 ‘아세안 협력선언 I(Bali Concord)’이 채택되고, 아세안 사무국이 자카르타에 설치되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이다. 이 조약은 독립, 주권, 평등, 영토와 국가 정체성의 상호 존중,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내정불간섭, 평화적 갈등의 해결, 위협과 무력사용의 포기 등을 제시하는데, 이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에는 동남아비핵지대화(South East Asian Nuclear-Weapon-Free-Zone, SEANWFZ)조약을 체결, 아세안 회원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취득, 자국 영토 내 배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동남아시아를 비핵지대로 만들고 지역안보를 강화, 국제평화에 기여하였다. 이후 발표된 ‘아세안 비전 2020’은 아세안의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며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세안 비전 2020

1997년 제2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으로, 2020년까지 아세안이 달성해야 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담겨 있다.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

Treat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주요 내용

△ 각국의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등 체약국 상호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 천명 △ 체약국 간 전통적·문화적·역사적 유대 및 선린 우호 관계의 강화 △ 역대 평화와 안정, 경제·사회·기술 등 공통 이해 관계가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구 △ 분쟁 발생시 무력사용 또는 사용의 위험 포기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추구 △ 역대 협력과 단결을 바탕으로 역외국들에게 아세안 지역안보협력 노력(중립주의, 무력사용 배제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참할 것을 촉구.

가입국

아세안 10개국, 파푸아뉴기니,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 한국, 러시아, 뉴질랜드, 몽골, 호주, 프랑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북한, 미국, 캐나다, 터키, EU,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칠레, 모로코, 이집트, 이란 등 36개국.

동남아비핵지대화 South East Asian Nuclear-Weapon- Free-Zone, SEANWFZ

대량살상무기,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동남아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1995년 맺어진 조약. 1997년 발효. 본 조약은 동남아비핵화지대조약에 관한 위원회(SEANWFZ Commission)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 회의를 갖고 있다. 본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은 2007~2012년, 2013~2017년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집행했다. 하지만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이 역외 다수 가입국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동남아비핵화지대조약은 역내 회원국 10개 국가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핵보유국인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5대 핵보유 국가와 가입을 논의 중이다.

아세안의 확대와 지역 정체성

1984년 브루나이가 영국 식민령에서 독립하여 아세안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냉전 해체 이후인 1995년에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추가로 가입했다. 그 결과 ‘아세안 10’이 형성되면서 아세안 회원국은 곧 동남아시아 국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력 또한 증대했다. 반면 회원국 간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후 아세안은 정치적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의 장으로 변모했다.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SEAN Free Trade Agreement, AFTA이 체결되었으며, 1997~199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보다 통합된 지역체, 즉 공동체의 출현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협력선언’을 채택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합의함에 따라 비전 제시와 제도·법률 정비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7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헌장이 채택되고, 2008년 12월 15일 발효되었다.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아세안 헌장은 현인그룹의 권고안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되었다.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의 기존 선언문, 합의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규범, 국내 정치적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서이다.

아세안 회원국별 가입일

1967.8.8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개 창립 회원국
1984.1.7 브루나이
1995.7.28 베트남
1997.7.23 라오스, 미얀마
1999.4.30 캄보디아

아세안의 주요 원칙

아세안 헌장은 서문과 5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아세안 회원국 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서문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서로 보살피고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1조 아세안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강화하고 평화 지향적 가치를 강화할 것을 명시한다. 민주주의 강화, 거버넌스와 법치 강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촉진과 보호를 언급하여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에 의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아세안 헌장을 심각하게 위배하거나 의무 사항 불이행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했다(제26·27조). 경제 분야 협력에 한해 사전합의를 전제로 회원국이 유연하게 참여하는 ‘ASEAN-X’ 원칙을 채택했다(제21조).

제6조에 명시된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기존 회원국이 인정하며, 아세안 헌장에 동의하고 회원국의 무 이행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국가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현재 2002년 독립한 동티모르를 제외한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세안 회원국이다.

아세안의 모토

하나의 비전
One Vision,
하나의 정체성
One Identity,
하나의 공동체
One Community
(아세안 헌장 제36조)

11번째 회원국 동티모르?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Timor-Leste)는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을 희망하고 있다. 2011년 공식 가입 신청을 한 이후 아세안은 동티모르 가입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헌장의 개정은 언제쯤?

아세안 헌장 제50조는 헌장 발효 5년 후 또는 정상회의의 결정에 의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12월 발효된 현재 아세안 헌장의 개정과 관련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주요 원칙과 관련된 중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헌장의 주요 내용

아세안의 체계화 및 제도화

- 법인격(legal personality) 부여
- 인권기구 설치(2009.10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출범)
- 독립적인 분쟁해결 기구 도입

지역 기구로서의 아세안의 역할 강화

-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의 2회 개최 / 사무국 조직 확대
- 인도네시아에 주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설치 및 상주대사 파견

아세안의 조직 구조

아세안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 2회 개최되며, 의장국은 순번제로 맡는다. 아세안 조정이사회 ASEAN Coordinating Council는 외교부장관들로 구성되며, 정상회의 준비와 결정 사항, 협정의 이행을 조정하는 핵심 조직이다.

아세안 공동체 이사회 ASEAN Community Council, ACCs는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별 협의회를 설치하며, 관련 분야 장관회의를 주관한다. 각 분야별 또는 분야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을 조율하며, 이를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권고 사항을 제출한다. 정상회의 결정 사항의 실무적 이행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아세안 장관회의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가 맡는다.

아세안 사무총장은 5년 단임이며, 회원국 순번제로 정상회의에서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아세안 현장의 적용과 그 밖의 아세안 협정 이행을 총괄한다. 또한 정상회의, 조정이사회, 아세안 공동체 이사회, 관계장관회의와 국제회의에 아세안을 대표해 참가한다. 4명의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을 아세안 조정이사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사무차장 4명 중 2명은 윤번제의 3년 단임으로 각 나라 정부가 임명하고, 다른 2명은 3년 임기로 자체 선발한다. 아세안 사무국의 운영 예산은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사무국의 연간 예산에 맞춰 똑같이 분담한다.

아세안 상주대표부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CPR는 회원국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파견한 아세안 대사들로 구성된다. 아세안 공동체 이사회와 관계장관회의를 지원하며, 아세안 조정이사회가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아세안 의장국

2017년 필리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태국

대한민국 아세안 대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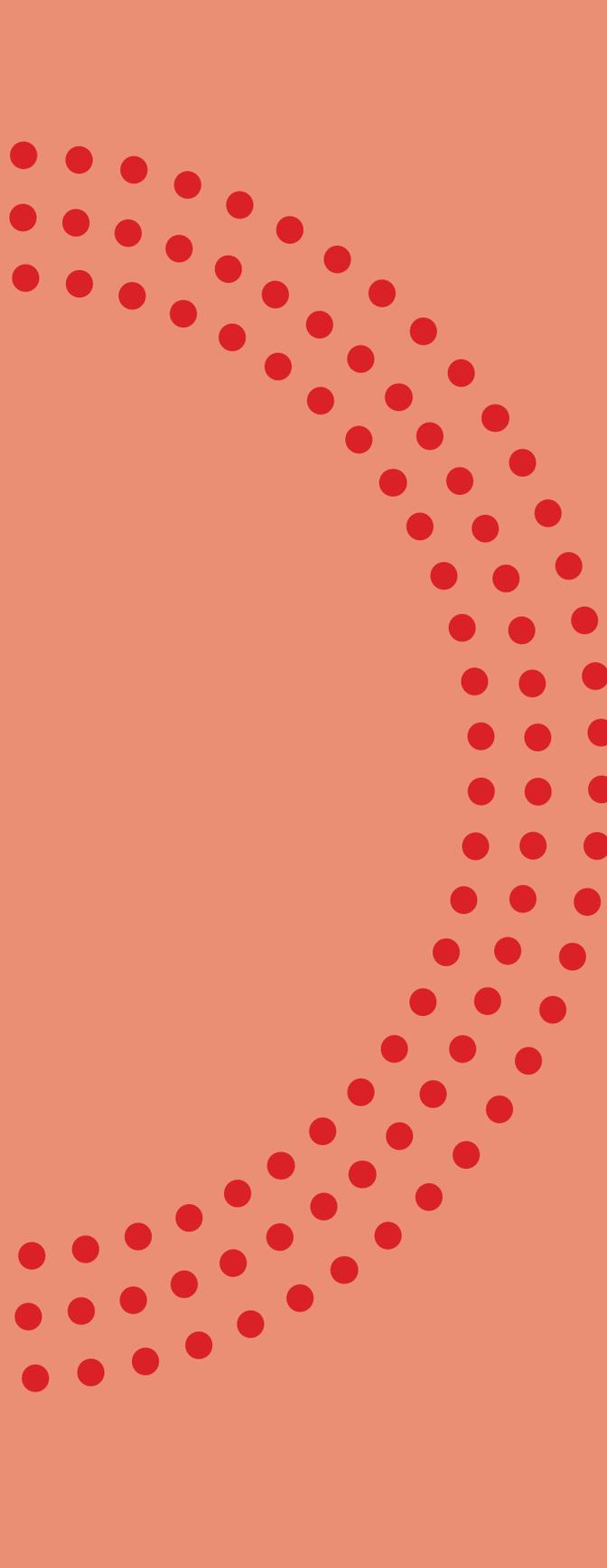
한국은 2012년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자카르타에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를 설치하고 상주대표를 임명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아세안 사무국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를 전담한다.

아세안 현장 이후
아세안 조직 체계





ASEAN COMMUNITY



2

ASEAN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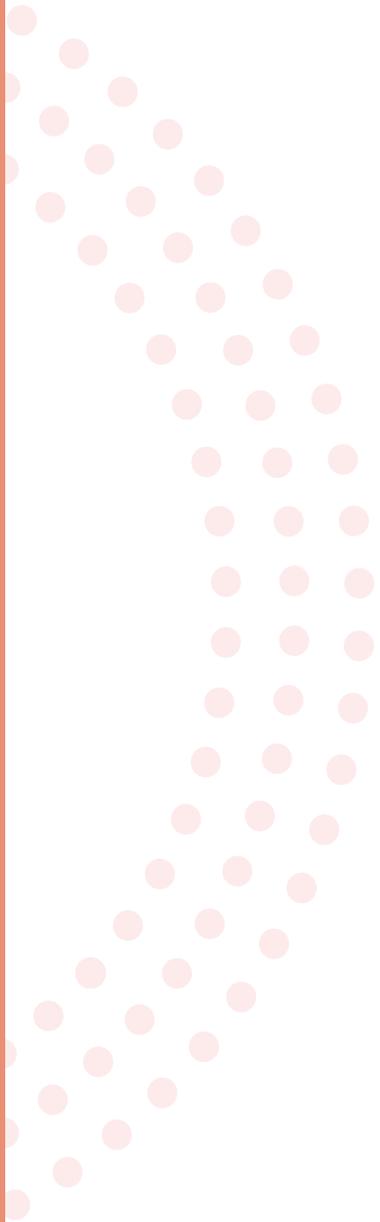
아세안 공동체

.....

천천히 가지만 함께 만드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아세안 공동체 ASEAN Community, AC는
동남아 지역에 있는 10개 국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공동체로서,
2015년 12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7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아세안 공동체는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아세안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그리고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세 축으로 구성되었다.



아세안 공동체의 지향점

정부간 지역공동체

아세안은 2008년 아세안 헌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아세안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였다. 아세안은 주권의 양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초국가(Supra-national) 성격을 갖는 조직이기보다는 주권국가(Sovereignty State)를 전제로 한 정부간(Inter-governmental) 협력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독립성과 주권을 전제로 하는 지역협력 모델

아세안 공동체는 회원국의 독립성과 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오랜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탈식민지 이후 근대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독립, 동등성 그리고 주권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회원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을 전제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통합을 이루는 것, 나아가 이러한 협력과 통합으로 개별 국가와 지역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세안 공동체의 과제이자 목표이다. 또한 아세안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역내 평화, 안보와 안정을 강화·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아세안 공동체는 회원국 간 독립과 주권을 전제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협력 공동체이다.

아세안 공동체는 인구, 국토 면적, 경제발전 수준, 정치체제, 사회문화 구조가 다른 이질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질적인 국가들 간의 지역협력이 가능하도록 아세안은 1967년 출범할 때부터 내정불간섭, 주권존중, 타협과 합의라는 아세안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아세안 정체성, '동남아적인 것'

아세안 공동체의 모토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 목표는 '돌봄과 나눔의 공동체 Caring and Sharing Community'이다. 약 6억 4천만 아세안 시민은 서로 돌보고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아세안 정체성 ASEAN Identity이란 무엇일까? 아세안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문구는 '다양성 속의 통합 Unity in Diversity'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개별 회원국들의 사회·문화적 기초를 반영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 국가들에는 다양한 종족·언어·종교·관습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동남아적인 것을 뿜어낸다. 동남아적인 것은 아세안 정체성의 토대이다. 아세안 시민은 아세안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꽃피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 속의 아세안, 아세안 속의 세계

아세안 공동체는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를 변혁하라 : 지속가능한 발전 UN 2030 Transforming Our World :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아세안 공동체는 아세안 현장부터 사람 중심의 공동체 지향을 분명히 밝혀 왔고, 2015년 공식 출범 이후부터는 이러한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글로벌 유엔의 목표가 아세안 공동체 건설 과정에서 함께 실천되고 있다.

2025년을 향하여

아세안 공동체는 2015년 12월 공식 출범했지만, 이것은 아세안 공동체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심화되고 유

기적으로 통합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여 도약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세안은 당초 2003년 아세안 협력선언 II Bali Concord II를 통해 2020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후 2007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앞당겨 출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3개의 공동체 중 가장 먼저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을 채택하였다. 이 청사진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건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2009년에는 정치·안보 공동체 청사진 및 사회·문화 공동체 청사진을 각각 채택하였고,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 실행 계획과 함께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2009-2015)에 관한 후아헌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하였다.

아세안은 2015년 말 공동체 출범에 앞서서도, 2015년 제27차 정상회의에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통해 보다 확대되고 통합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인 ‘아세안 2025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세안 공동체라는 개념이 완성된 결정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행 방안을 실현해 나가야 할 진행형 과제임을 보여준다.

다양성 속의 통합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통합은 아세안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문구다. 다양성 속의 통합은 아세안 개별 회원국들의 사회·문화적 기초를 반영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 국가들의 다양한 종교·종족·언어·관습이 어우러져서, 동남아시아적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는 동남아시아 특성이면서 아세안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 2025

평화를 바탕으로 포용적이며 포괄적인 안보 체제 만들기

2025년까지의 청사진

2009년 발표된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은 ‘가치와 규범, 규칙 기반 공동체’, ‘포괄적 안보 공동체’, ‘세계무대에서 역동적인 아세안’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5년 발표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서는 정치·안보공동체의 아홉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p.28 표).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 2025’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1. 규칙 기반, 사람 지향 및 사람 중심의 공동체

Rules-Based, People-Oriented, People-Centered Community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는 회원국의 정치 발전을 이끌어내고, 법과 규칙에 따라 작동되는 지역협력 조직을 만들기 원한다. 첫째, 아세안의 기본 원칙인 아세안 헌장,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협약을 준수하여 법제도가 우선하는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부패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권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한다. 셋째,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조화를 위해 관용과 중용의 가치를 확대하며, 역내외 평화와 안정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각 국가의 독립, 주권, 동등성, 영토적 통합, 내정불간섭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아세안 각 회원국의 정치적·법적 체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도모한다.

2.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된 지역

Peaceful, Secure and Stable Region

포괄적, 평화적 그리고 탄력적인 정치·안보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세안은 포괄적 안보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의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아세안 의장,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AMM),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 조정이사회(ASEAN Coordinating Council, ACC),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등 조직과 회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키고, 아세안 현장의 구속성을 강화한다.

둘째, 아세안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과 긴급한 이슈에 대해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반응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장국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키고, 각국 정상과 장관, 고위급, 상주대표부 차원에서 특별회의가 탄력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한다.

셋째, 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초국가적 범죄, 테러리즘, 마약, 인신매매, 무기 밀매와 밀수, 사이버 범죄, 국경관리, 재난관리, 긴급상황, 연무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위협 또는 폭력을 배제하고, 아세안 현장과 국제법에 기초하여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하여 예방외교, 신뢰구축, 갈등 후 평화 구축 등 제도를 체계화한다.

다섯째,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유로운 동남아 지역을 유지한다. 전 세계가 비무장·비핵화로 나아가는바, 이에 동조하고 핵에너지에 대한 평화적 사용에 기여한다.

3.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아세안 중심성

ASEAN Centrality in a Dynamic and Outward-looking Region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도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는 아세안의 단결과 아세안의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이 국제무대에서, 또 아세안 공동체의

건설과 통합을 실현하고자 할 때 취하는 기본 원칙이다.

아세안 중심성의 원칙은 동남아 지역을 독자적 지역으로 만든다기보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개방적인 지역을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는 국제무대에서 아세안 주도의 다양한 ASEAN+ 회의 체제를 만들어 운영한다(ASEAN-led mechanism). ASEAN+1 체제, ASEAN+3 체제, ASEAN+6 체제, ASEAN+8 체제, ASEAN+17 체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ASEAN+1의 대화상대국 중 한국·미국·중국·일본·호주의 상설대표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치되어 있다. 아세안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과의 실질적이며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4. 강화된 제도적 능력을 갖춘 아세안

Strengthened ASEAN Institutional Capacity and Presence

아세안 정상회의, 부문별 공동체협의회, 관련 장관급 및 고위급 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3 등 회의체 능력을 키우고, 아세안 관련 산하기구와 아세안 사무국 등 아세안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는 2012년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내에 만들어진 상설기구이다. 유엔 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5주년이었던 2012년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인권선언(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을 채택한 이후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는 아세안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아동·여성·소수 종족 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교육, 법제도적 협력, 역량 강화는 물론, 아세안 조직들과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등에 관여하고 있다. 2017년 제24차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인신매매, 안전한 물관리, 위생, 아동, 보건, 장애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종족 문제와 같이 민감한 인권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19일 진행된 제24차 AICHR 회의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구축을
기본으로 유연한 경제공동체 만들기

2025년까지의 청사진

2007년 발표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은 ‘단일시장·생산
기지’, ‘경쟁력 높은 경제지역’, ‘균형 경제 발전’, ‘세계 경제로의
통합’ 네 가지 목표로 제시되었다. 2015년 발표된 ‘아세안 경제
공동체 청사진 2025’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보다 통합되고 연결
된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좀 더 구체화된 목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는 아세안이 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원활한
무역과 투자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장 주도의 환경을 갖추
수 있게 발전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1. 고도로 통합, 결합된 경제권

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단일시장을 형성하
고, 아세안 역내 무역과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서비
스, 투자, 자본 그리고 숙련노동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품 : 아세안 상품협정^{ASEAN Free Trade Area Agreements, ATIGA} 강화,
아세안+1 FTA 촉진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sup>Regional Compre-
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sup> 협상 추진, 원산지 규정 이행과
단순화, 무역 원활화 집행과 심화 등. 구체적으로 아세안 싱글윈도
^{ASEAN Single Window, ASW} 구축과 범위 확대, 무역에 관한 행정 규제,
문서, 수출입 과정, 세관 규정의 단순화와 합리화, 비관세 조치의
실현 등.

서비스 : 아세안 서비스협정 ASEAN Free Trade Area Agreements, AFAS의 실현, 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Trade in Services in ASEAN, ATISA의 집행과 협상 진전.

투자환경 :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아세안 포괄적투자협정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의 집행, 투자제한 조치들에 대한 자유화, 투자 보호, 투자법과 행정 가이드라인의 투명성 제고.

금융 : 금융통합, 금융포괄성, 금융안정성 세 가지 원칙과 자본의 자유화, 지불과 결제 시스템, 역내 금융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에 기초한 금융통합 지향.

숙련노동과 비즈니스맨들의 자유로운 이동 : 아세안 자격인증제도 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 AQRF 집행, 전문직 상호인증제도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in Services, MRAs 집행,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MNP 실현 등.

2.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A 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ASEAN

아세안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이다.

효과적인 경쟁력 정책 : 국제적 베스트 프랙티스 Best practice를 아세안 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

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는 현대적, 효율적, 효과적 그리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

지적재산권 협력 증진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보호로 역내 회원국에게 한 차원 높은 기술 발전 증진, 기술이전 활성화, 혁신과 창의성 증진 등.

혁신과 연구개발 : 연구기술파크 조성,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산·관·학 협력 체제 구축, 지역적 차원의 R&D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발전 등.

군 거버넌스 :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 관행을 만드는 노력.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재생가능한 에너지, 저탄소 기술, 식량안보, 보건 및 환경 이슈에 적합한 새로운 적정 기술, 관리시스템의 발전.

3. 연계성 및 부문 간 협력 강화

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아세안 연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교통,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등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통 : 교통 인프라 상호 연계성 강화 및 완성, 아세안 단일항공 시장 ASEAN Single Aviation Market, ASAM 강화, 아세안 단일해운시장 ASEAN Single Shipping Market, ASSM 구축과 해양안보 증진, 국제해양 기구 IMO 조약의 효과적인 집행, 교통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협정 완료 및 실행 등.

정보통신기술 : ASEAN ICT 마스터플랜 계승과 집행, ICT 혁신과 기업가 지원, ICT 인프라 발전, ICT 인적자원 개발, 뉴미디어와 콘텐츠 산업 증진 등.

전자상거래 :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AAeC 실현.

에너지 : 에너지 협력을 위한 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5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APAEC의 실현.

식량·농업·임업 : 아세안 식량·농업·임업에 관한 비전 Vision and Strategic Plan for ASE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FAF의 실현.

관광 :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보건 :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강화하고, 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 지식, 전통 약제 방식을 적극 활용.

광업 : 아세안 광업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 2016-2025 ASEAN Minerals Cooperation Action Plan 2016-2020, AMCAP 2016-2025의 실현.

과학기술 : 아세안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행동계획 2016-2025 ASEAN Plan of Action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2016-2025, APASTI 2016-2025의 실현.

4. 복원력 있고 포용적이며 사람지향적·사람중심적 공동체 A Resilient, Inclusive, People-Oriented and People-Centered Community

불균형한 경제발전을 지양하고 균형 잡힌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육성 정책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아세안 경제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 과제를 갖고 있기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시장진출,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민간 영역 역할 제고 :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운영, 민간 영역의 자문 제도화, 온라인 네트워크 포럼 등.

민관협력 체제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 민관합작투자사업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와의 연계성 플랜을 실현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활성화 필요.

개발격차 해소 :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으로 구성된 성장지대 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BIMP-EAGA,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으로 구성된 성장 트라이앵글 Indonesia-Malaysia-Thailand Growth Triangle, IMT-GT, 메콩강 유역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 II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II, IAI III의 집행 등.

이해당사자 참여 증진 : 경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입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을 늘리며, 경제 이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자문 활동 강화.

5. 글로벌 아세안

A Global ASEAN

아세안은 그동안 중국·일본·한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역외 국가들과의 FTA와 포괄적경제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s, CEPs)을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AHKFTA)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FTA와 포괄적경제협정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아세안 경제공동체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지역 통합과 연계성 사업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 이후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 ASEAN ICT Masterplan 2020, AIM을 제시했다. 이 마스터플랜은 아세안이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의 목표는 첫째, 아세안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Digitally-enabled), 둘째,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ICT 환경을 구축하고(Secure), 셋째, ICT 사용에 익숙하면서도 지속적인 ICT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Sustainable). 그리하여 변혁적이고, 혁신적이며, 포괄적·통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

Transformative

A progressive environment for the disruptive use of technology for ASEAN's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Innovative

A supportiv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that encourages innovative and novel uses of ICT.

Inclusive and Integrated
Empowered and connected citizens and stakeholders.



출처 :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 p.10.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육성정책

MSMEs(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와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차이점은 'Micro' 단위 기업의 유무에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부터 SMEs가 아닌 MSMEs로 표기하고 있다. 마이크로 단위 기업에는 여러 가지 양태가 있을 수 있는데, 1인 기업이 가장 작은 단위이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디지털 혁신 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 그리고 균형 잡힌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MSMEs 육성정책은 아세안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인프라·인적자원개발·정보통신기술·지역경제통합 등 4개 분야에서 총 134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09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09~2015년간 IAI 2단계 실행 계획을 승인하여 집행했으며, 2016년 정상회의에서 IAI 3단계 실행 계획을 승인하여 향후 5년간 아세안 개발격차 해소, 지역 경쟁력 강화, 3개 공동체별 청사진 이행 지원 등의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

아세안 시민이 주인 되는 공동체 만들기

2025년까지의 청사진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아세안 공동체의 목적인 사람 중심의 아세안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갖고 있는 공동체이다. 아세안 공동체의 목적이 아세안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인적 자원 개발, 사회복지와 보호, 사회정의와 권리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 아세안 정체성 형성, 개발격차 해소를 목표로 해왔다.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과 실천이 요구되는데,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실행적이고 참여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동체

Committed, Participative and Socially-Responsible Community

‘실행적’의 함의는 사회·문화공동체 실천의 영향이 아세안 시민에게 충분히 돌아가야 한다는 굿 거버넌스의 원리에 기초한다. ‘참여적’의 함의는 사회·문화공동체의 의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열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다.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학계, 기업, 정부 및 비정부 조직 등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사회·문화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감’은 모든 사회·문화공동체의 실천이 아세안 시민의 역량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아세안이 사회 지도자 및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2. 포괄적 공동체

Inclusive Community

포괄적 공동체는 첫째, 아세안 시민을 위한 기회 증진과 여성·아동·청년·노년층·장애인·이주노동자·소수 종족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복지, 사회 보호, 여성 역량 강화, 성평등, 인권 보호와 증진, 기회 균등, 빈곤 해소, 보건, 품위 있는 일자리, 교육과 정보 등과 같은 이슈들이 경제공동체의 포괄적 성장 의제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 실천 방향은 모든 차별의 제거,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인권보호와 인권 증진 등이다.

3. 지속가능한 공동체

Sustainable Community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첫째, 사회 변화와 경제발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 둘째,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경우에서 시민들의 필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 실천 방향은 생물 다양성과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존, 친환경적 도시 만들기,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만들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이다.

4. 복원력 있는 공동체

Resilient Community

복원력 있는 공동체는 첫째, 안보와 통합 정책, 역량 강화와 제도 구축, 재난 위험 대비, 인도적 지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 둘째, 현재의 도전과 새롭게 출현할 위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 실천 방향으로서는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 회복력 만들기, 생물학적·화학적 위협과 방사선·핵으로부터의 위협, 이에 더해

새로운 위협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서 아세안 만들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아세안 만들기, 모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만들기, 최적의 금융시스템·식량·물·에너지·사회 안전망 만들기,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세안 만들기 등이다.

5.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Dynamic and Harmonious Community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는 첫째, 지속적 혁신이 가능하며, 세계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일원으로서 사람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 둘째, 적응 가능하며 혁신적인 기업이 정책과 제도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실천 방향은 개방적이고 적응 가능한 아세안 만들기, 창의적, 혁신적 그리고 책임감 있는 아세안 만들기, 기업가 정신의 문화 만들기 등이다.

문화와 예술을 통한 아세안 정체성과 문화교류

아세안 국가들은 자부심이 강하다. 그 자부심의 기초에는 역사와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종교인으로서 아세안 시민은 일상과 예술 영역에서 아세안 시민의 정신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아세안 사회공동체는 하나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아세안 문화유산과 아세안 문화 정체성을 강조한다. 1978년부터는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ASEAN Committee for Culture and Information, COCI)를 통해 문화·예술·미디어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최근에는 아세안 문화·예술 관련 장관회의(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AMCA)를 통해서 아세안 문화예술 전략 2016-2025 ASEAN Strategic Plan for Culture and Arts 2016-2025도 함께 실천하고 있다.



2016년에 진행된 제13차 ASEAN-COCI 회의

**아세안 시민사회
컨퍼런스**
ASEAN Civil Society
Conference, ACSC,
아세안 시민포럼
ASEAN People's
Forum, APF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 2025에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 이전에는 강조되지 않았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 이전의 역사가 정치지도자와 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아세안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세안은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아세안 시민사회조직 AS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의 적극적인 개입을 독려한다. 아세안 공동체에 아세안 시민사회조직으로 등록된 단체는 에어아시아재단 Air Asia Foundation, 아세안 과학·공학·기술 아카데미 ASEAN Academ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AAET 등을 포함하여 52개에 이른다. 아세안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임은 아세안 시민사회 컨퍼런스 ASEAN Civil Society Conference, ACSC와 아세안 시민포럼 ASEAN People's Forum, APF 등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2016년에 진행된 ACSC/APF 회의



3

ASEAN CONNECTIVITY

아세안 연계성

더 긴밀하고 가까운 아세안

아세안 연계성 ASEAN Connectivity 사업은 2010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을 채택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그 이후 2015년까지 아세안 연계성 사업이 지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아세안 연계성 사업의 핵심인 '물리적 인프라'가 도로·철도·항만·항공 등 대규모 사업이어서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10~2015년까지 진행된 아세안 연계성 사업이 물리적 연계성, 제도적 연계성 그리고 인적 연계성 세 축으로 구성되었다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될 아세안 연계성은 이 같은 세 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망, 효과적인 규제, 인적 이동 등 다섯 가지 전략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 연계성의 배경과 정의

연계성의 개념은 2009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연계성에 관한 정상 성명 Leader's Statement on ASEAN Connectivity이 발표되며 본격 등장하였다. 이어 2010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0, MPAC 2010이 채택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연계성 사업의 목적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지 구상 실현, 개발격차 해소, 아세안 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아세안 연계성은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 세 축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연계성 Physical Connectivity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통(철도·고속도로·항만 등)·에너지·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구축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도적 연계성 Institutional Connectivity은 상품·서비스·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통관 등 각 나라별로 상이한 제도를 역내에서 통일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인적 연계성 People-to-People Connectivity은 아세안 회원국 시민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라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내 아세안 시민들의 역내 관광 촉진,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및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아세안 정체성을 고양한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 추진 결과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 물리적 연계성 분야에 총 7개 전략과 55개 이니셔티브, 제도적 연계성 분야에 총 10개 전략과 50개 이니셔티브, 인적 연계성 분야에 총 2개 전략과 20개 이니셔티브가 계획, 추진되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이행 정도를 보면, 제도적 연계성과 인적 연계성 이행 정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물리적 연계성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1. 물리적 연계성 Physical Connectivity

아세안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에서 물리적 연계성 사업으로 7개의 전략과 55개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 5월 기준으로 18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교통 분야의 경우, 비포장 협소 2차로 이하 Class III 구간이 2010년 5,311km에서 2015년 2,454km로 46.2% 개선되는 등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 사업 ASEAN Highway Network, AHN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싱가포르-쿤밍 철도 연결 프로젝트 Singapore-Kunming Rail Link, SKRL는 자원 조달 문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지속가능한 전력망 ASEAN Power Grid, APG의 9개 송전선 연결 프로젝트 및 범아세안 가스 파이프라인 Trans-ASEAN Gas Pipeline, TAGP의 13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등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가 자원 조달, 수익성, 기술적·제도적 미비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ICT의 경우, 아세안 광대역 회선 ASEAN Broadband Corridor 및 아세안 인터넷 교환 네트워크 ASEAN Internet Exchange

Network, AIX 프로젝트가 이행되었다. 아세안 단일통신시장ASEAN Single Telecommunication 구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물리적 연계성의 주요 전략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 추진 기간											이니셔티브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획	*완료
1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														11	2
2 싱가포르-쿤밍 철도 연결 프로젝트														11	1
3 내륙수로 네트워크														1	0
4 통합 해양물류 시스템														4	1
5 아세안 복합물류체제														8	3
6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7	6
7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제도 이슈 우선순위														13	5
														55	18

* 2016년 5월 기준

2. 제도적 연계성

Institutional Connectivity

제도적 연계성 사업으로 10개의 전략과 50개의 이니셔티브를 계획하였으며, 현재 15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상품 운송 원활화를 위한 3대 기본 협정, 즉 상품이동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 AFAFGIT, 국경 간 운송 원활화를 위한 아세안 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n Inter-State Transport, AFAFIST, 그리고 복합운송에 대한 아세안 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Multimodal Transport, AFAMT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단일시장 구축의 경우, 항공보다 해운 분야의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재화 및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행되었으나, 대부분 소구역sub-regional 및 양자bilateral 간 사업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범아세안 지역을 포괄하는 제도적 연계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주요 전략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 추진 기간										이니셔티브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획	*완료
1 물류 활성화 3대 기본 협정														6	2
2 국경간 여객 및 운송 활성화														2	0
3 아세안 단일항공시장														9	2
4 아세안 단일해운시장														2	2
5 역내 상품 무역장벽 철폐, 상품 무역 자유화														15	4
6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물류 개발														2	0
7 역내 무역 활성화														6	2
8 국경 관리 역량														3	0
9 공정한 투자법, 투자 개방 확대 가속화														2	2
10 낙후지역 제도 역량 강화, 아세안-소지역 프로젝트 조정/개선														3	1
														50	15

* 2016년 5월 기준

3. 인적 연계성

People-to-People Connectivity

인적 연계성 사업으로 2개의 전략과 20개의 이니셔티브를 계획하였으며, 현재 6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그중 아세안 내 사회·문화 분야의 개선이 눈에 띈다. 2012년에 초·중등 강의 교안 커리큘럼 교재 ASEAN Curriculum Sourcebook가 개발되었고, 2015년에 아세안 가상학습교재센터 ASEAN Virtual Learning Resource Center가 출범하였다.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 ASEAN University Network, AUN도 인적 연계성을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기관 간 상이한 커리큘럼과 제도, 역내 학생 및 교직원 교류를 위한 재원의 한정, 아세안 국가 간 언어장벽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관광 분야의 경우, 문화유산, 크루즈, 홈스테이, 보건 및 의료 관광, 그리고 생태관광 등 아세안 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그러나 역내 숙련 인력 이동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한 예로 2016년 8월에 관광 분야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직무능력 표준제도 및 교육과정을 만들고, 전문가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비자 발급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숙련 인력 이동을 위한 법률 및 규제는 현재까지 모든 아세안 국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주요 전략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 추진기간											이니셔티브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획	*완료
1 아세안 회원국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														10	5
2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 이동 증진														10	2
														20	6

* 2016년 5월 기준

아세안 연계성 2025와 10대 트렌드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기존 사업을 평가하고 재정립하여,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MPAC 2025를 제시하였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를 마련하는 과정에 학계, 기업,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에 영향을 미칠 10대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소비계층의 증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필요, 중규모 도시의 증가, 인프라 투자 수요 증대, 글로벌 이동 현상, 숙련 인력 부족, 혁신기술 활용, 자원 효율성 및 다변화 필요, 글로벌 경제 분산화, 지정학적 변화 반영 등이 그것이다(p.53 표 참조).

이 10대 트렌드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내의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물리적 연계성의 경우, 도시화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수요 증대, 주요 물류 루트 및 저개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요구된다.

제도적 연계성의 경우, 아세안 소비계층의 증가로 역내 무역이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물류 경쟁력 개선 및 디지털 경제 성장으로의 법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인적 연계성의 경우, 역내 관광 활성화에 따른 비자제도 개선, 정보 제공의 원활화, 그리고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 교육 시행 등이 예상된다.

10대 트렌드		
1	소비계층의 증가	- 2016년 기준 8,100만 명의 소비계층이 2030년에 1억 6,3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소비계층의 폭발적인 증가로 아세안 내 무역, 관광, 의료 및 농업 교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2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필요	- 지역 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생산성 제고 필요
3	중규모 도시의 증가	- 2030년까지 9,000여 명이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 - 수도와 같은 대도시보다 2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중규모 도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 - 새로 구축된 중규모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지식 공유 필요
4	인프라 투자 수요 증대	- 2030년까지 아세안은 교통 수자원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 3조 달러 이상의 투자 필요 - 아시아개발은행AIB, 일본이 발표한 '질적 인프라를 위한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등 새로운 자금조달원과의 협력 예상
5	글로벌 이동 현상	- 아세안 경제공동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아세안 내 무역 및 경제 자유화를 위한 협정 체결이 가속화될 전망
6	숙련 인력 부족	- 아세안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제3위 노동시장이나 아세안 인구의 11%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60%는 초등교육 이하임
7	혁신기술 활용	- 2030년까지 혁신기술(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및 자동화)이 2,200억 달러에서 6,2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
8	자원 효율성 및 다변화 필요	-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80%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수자원 농업 자재 등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필요성 대두
9	글로벌 경제 분산화	- 2007년 이후 57조 달러 규모의 재정위기가 대두되고, GDP 대비 부채는 17%까지 증가됨에 따른 글로벌 경제체제의 위험성 존재 - 민간투자 부족 및 노령인구 증가 예측
10	지정학적 변화 반영	- 글로벌 패권 다변화, 영토/해양권 영유권 분쟁, 난민 문제, 기후변화, 테러 등 초국가적인 문제의 대두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5대 전략과 15대 핵심 이니셔티브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0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통한 아세안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망, 효과적인 규제, 그리고 인적 이동 등 5대 전략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15대 핵심 이니셔티브로 세분화된 점이 특징이다.

1.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

아세안 사무국의 발표에 따르면, 아세안은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과거 아세안 인프라 투자 금액의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10대 트렌드에 언급된 바 있는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중규모 도시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전략 목표 및 핵심 이니셔티브는 아래와 같다.



아세안 연계성 2025

VISION

경쟁력 있고 포용적이며 공동체 의미를 추구하는
원활하고 포괄적으로 연계·통합된 아세안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망



효과적인 규제



인적 이동

5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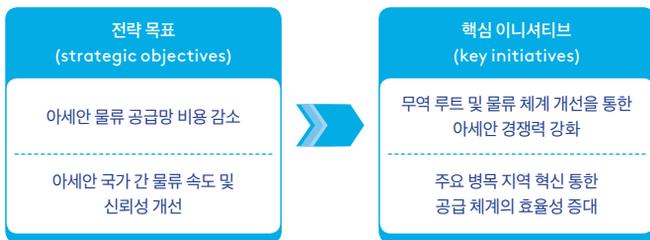
2. 디지털 혁신 Digital Innovation

2030년까지 아세안 시장에서 디지털 기술(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사물인터넷, 자동화 기술 등)은 6,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아세안 전체 GDP의 8%에 달한다. 아세안은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첫째, 데이터 관리 및 핀테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둘째, 개방형 데이터(open data) 우수 사례 공유, 그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혁신의 전략 목표 및 핵심 이니셔티브는 아래와 같다.



3. 원활한 물류망 Seamless Logistics

아세안 내 세관 및 물류 비용은 국제표준지수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태국 국경에서 양곤까지 컨테이너 물류 비용은 2천 달러인 데 반해, 거리가 훨씬 짧은 태국 국경에서 방콕까지의 비용은 500달러이다. 최근 아세안 내 제조업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활한 물류망의 전략 목표 및 핵심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4. 효과적인 규제

Regulatory Excellence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는 지역 내 규제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지원 및 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아세안 회원국 간 역량 차이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 전략은 모범규제관행 Good Regulatory Practice, GRP의 4단계(협의consultation, 계획design, 이행implementation, 검토review)를 제시하며, 이를 통한 규제 개선 및 연계성 강화를 강조한다. 효과적인 규제의 전략 목표 및 핵심 이니셔티브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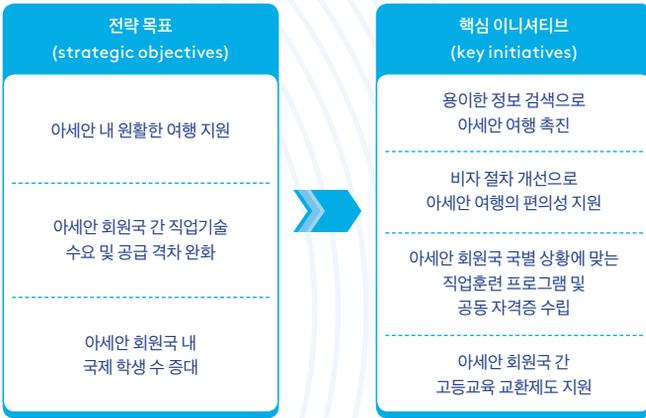


5. 인적 이동

People Mobility

역내 자유로운 인적 이동의 하나인 관광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세안 사무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해외 아세안 관광객 수는 매년 9.6%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그 숫자가 1억 5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비자제도 완화 및 용이한 여행 정보 제공 등 아세안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인적 이동의 전략목표 및 핵심 이니셔티브는 아래와 같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6대 이행 전략

아세안 공동체는 위 5대 전략 및 15대 이니셔티브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6대 이행 전략을 세웠다.

첫째, 분명하고 조율된 계획 Clear and aligned plans : 분명한 비전, 전략과 집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관련 사업의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범위와 경계, 협력 관계를 분명히 한다.

둘째, 뚜렷한 목표와 타깃 수립 Strong focus and targets : 정부 리더들은 우선적인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행동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적합한 타이밍이 제시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셋째, 투명한 거버넌스와 주인의식 Clear governance and ownership :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별 국가의 집행 담당자와 관련 그룹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성실한 집행관리 Robust performance management : 잠재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관리는 강력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관리 체계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다섯째, 이해당사자의 활발한 참여 Proactive stakeholder engagement : 각 전략 또는 사업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통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진보된 결과를 획득한다.

여섯째, 핵심 기술, 인센티브 그리고 재정 Presence of core skills, incentives and finance : 각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 인센티브, 자원 마련과 관련하여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이행 일정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는 5대 전략 및 15대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 이행 일정표를 수립했다.

첫째, 기획 단계에서 자원 조달 계획 및 주요 이행 기관 간의 협의점을 도출한다. 둘째, 1차 이행 기간에 데이터 수집, 역량 개발 프로그램 기획,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등 사업 초기 단계를 이행한다. 마지막으로, 2차 이행 기간에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목표로 1차 이행 기간에서 진행된 초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이행 일정표 (2016-2025)

5대 전략 (strategic areas)	15대 추진 계획 (key initiatives)	추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 지속가능한 인프라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의 우선성 선정과 구체적인 자금 마련 확보														
	아세안 인프라 플랫폼 구축														
	아세안 주요 도시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 수립														
2 디지털 혁신	소상공인 기술 플랫폼 강화														
	아세안 금융통합성 증진														
	아세안 오픈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3 원활한 물류망	무역 루트 및 물류 체계 개선을 통한 아세안 경쟁력 강화														
	주요 범용 지역 혁신 통한 공급 체계의 효율성 증대														
4 효과적인 규제	3대 우선상품군의 기준·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통일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평가제도 강화														
5 인적 이동	용이한 정보 검색으로 아세안 여행 촉진														
	비자 절차 개선으로 아세안 여행의 편의성 지원														
	아세안 회원국 국별 상황에 맞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 자격증 수립														

A decorative pattern of small, dark purple triangles scattered across the page, primarily concentrated on the left side and bottom. The triangles vary in size and orientation, creating a dynamic, abstract background.

4

ASEAN CENTRALITY

아세안 중심성

세계 속의 아세안:
지역협력의 중추 역할

아세안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역할도 확대되었다. 아세안은 대외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을 통해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적 생존을 도모했으며, 2011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택된 ‘범세계적 공동체에서의 아세안 공동체에 관한 선언’, 일명 ‘발리 선언 III’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중심성 ASEAN Centrality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아세안 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추동력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아세안이 자칫 강대국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이슈에 대해 아세안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아세안은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체제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을 창설하고 아-태 다자안보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협력 분야 회의체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중심성이란?

아세안이 대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와 협력을 주도하는 추진력 driving force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을 의미하며, 아세안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다.

아세안 중심성의 세 가지 요소

대외협력

아세안+1, 아세안+3, EAS, ARF, ADMM+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력 프로세스는 물론 APEC, ASEM 등 확대 협의체에서 아세안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공동체 건설

아세안 공동체 건설로 글로벌 이슈에서 보다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제도적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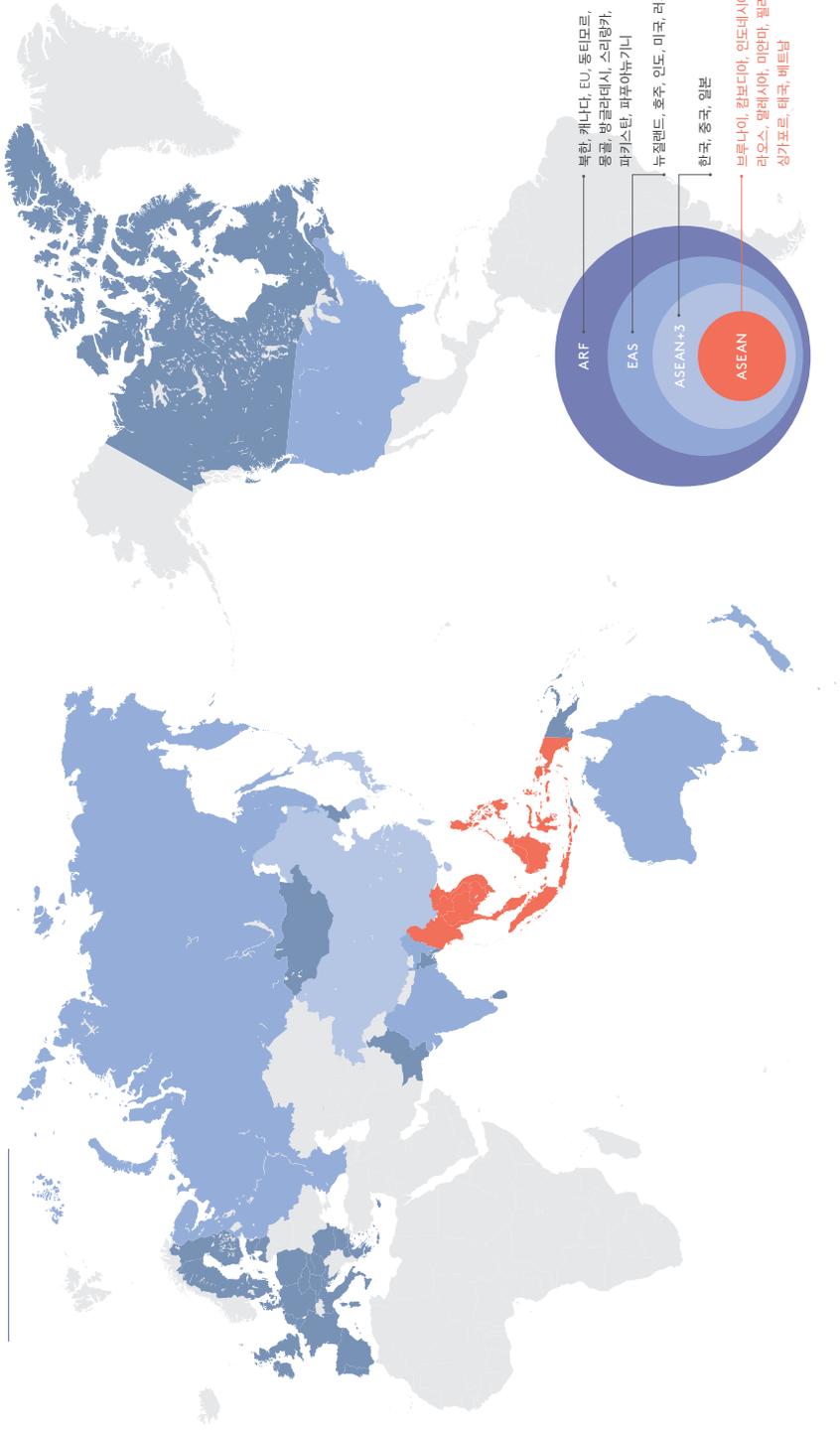
아세안 사무국 및 관련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아세안 중심성의 도전

아세안 헌장 41조 4항에 따르면 아세안의 대외관계 이행에 있어 회원국들은 공통의 입장을 개발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문제 속에 아세안 중심성 유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25차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세안 설립 이후 최초로 의장 성명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아세안 중심의
지역 협의체



- ARF
북한, 캐나다, EU, 동티모르,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EAS
뉴질랜드, 호주, 인도, 미국, 러시아
- ASEAN+3
한국, 중국, 일본
-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대화상대국 ASEAN+1

아세안과의 공식 외교 관계는 대화상대국, 부문별 대화상대국 sectoral dialogue partner, 비국가 대화파트너 non-country dialogue partner, 개발 파트너 development partner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외 주요 국가들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되어 아세안의 정치·안보 또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반영한다. 1974년 호주가 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된 이후, 1975년 뉴질랜드, 1977년 유럽연합·일본·캐나다·미국, 1989년 한국, 1995년 인도, 1996년 중국과 러시아가 차례로 대화 관계를 맺음으로써 총 10개 아세안 대화상대국, 아세안+10 체제가 구축되었다.

1997년 파키스탄이 부문별 대화상대국이 되었으며, 2007년에는 유엔과 양해각서를 체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르웨이, 2016년에는 스위스와 각각 부문별 대화상대국 관계를 맺었다.

대화상대국 한국

한국은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수립을 1977년부터 추진하여 1989년 22차 아세안 장관회의에서 무역·관광 분야 부문별 대화상대국의 지위를 획득한 데 이어, 1991년에는 완전대화상대국 full dialogue partner이 되었다.

아세안과 유엔

아세안은 유엔과 2000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후 2005년과 2010년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011년 포괄적 동반적 관계로 격상한 이래 매년 유엔-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3

ASEAN+3, APT

아세안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대화상대국인 한국·중국·일본 동북아 3국을 결합한 아세안+3, 즉 ASEAN Plus Three, APT 형태로 동아시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맞아 1997년 12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당시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한·중·일 3국을 ‘비공식’ 정상회의에 초대할 것을 계기로, 13개국 정상은 매년 아세안+3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 노력의 주요 추진체로서 아세안+3 체제는 외교·경제·재무·환경·정보통신·문화예술·과학기술 등 24개 분야에서 정상회의를 비롯한 65개 협력체가 가동 중이다.

한국이 제안하고 활동을 주도한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은 지역 현안과 공동체 방안 연구를 담은 보고서를 2002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제출하여 동아시아 협력을 이끌었다. 또한 2012년에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3 주요 협력 현황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2010년 발효)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2011년 발효)
- 아세안+3 비상쌀 비축협정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2012년 발효)
- 아세안+3 협력기금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APTCF (2008년 정관 승인)
- 동아시아비전그룹 East Asia Vision Group, EAVG (1998~1999)
- 동아시아연구그룹 East Asia Study Group, EASG (2001~2002)
-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II (2011~2012)

아세안+3 정상회의 주요 협력 현황

- 제1기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I 최종보고서 제출 : '평화·번영·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제시 (2001, 브루나이)
- 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최종 보고서 제출 :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걸친 9개 중장기 사업과 17개 단기사업 제안' (2002, 캄보디아)
-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및 '아세안+3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2007-2017)' 채택 (2007, 싱가포르)
-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 EAVG II 보고서 제출 :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달성' 등 59개항 63개 협력사업 제시 및 '아세안+3 협력 15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 (2012, 캄보디아)

아세안+3와 트랙 2 협력

- 동아시아연구그룹 EASG 최종 보고서가 제안한 17개 단기사업 중 비정부 행위자의 공식·비공식 외교 활동을 포괄하는 트랙 2 외교 교류 활동 포함.
- 한국이 산·관·학의 유기적 협의체로서 동아시아포럼 East Asia Forum, EAF을, 중국은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NEAT를, 중국은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NEAT를, 일본은 학술교류를 위한 동아시아연구 증진사업 Network of East Asian Studies, NEAS을 각각 제안, 주도했다. 현재 동아시아포럼과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세안+3 체제에서의 금융협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아세안+3 경제조사기구

1997~1998년 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가 신설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단기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골자로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체제를 출범시켰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총 365억 달러에서 2006년 750억 달러, 2009년 1,20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해 갔다. 이어 2007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2010년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CMIM)로 전환되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 하에서 공동기금은 종전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분담 비율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한국이 16%로 한·중·일 3국이 전체의 80%, 아세안은 20%를 분담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 하에서는 참가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체결한 약정서에 기초해 분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IMF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비율을 2012년 당초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40%까지 확대를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역대 위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대 거시경제 모니터링 분석과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를 2013년 싱가포르에 설치한 데 이어, 이를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조약을 2014년 서명, 2016년 2월 국제기구로 출범했다.

아세안+3 체제에서의 식량안보 협력

2007~2008년 국제 곡물 가격 파동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의 식량안보가 위협받았다. 세계 곡물시장의 투기성을 견제하고 개별 국가 차원의 비상식량을 저장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식량안보협력 필요성이 증가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식품·농업·임업·어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1년에는 APT 바이오에너지와 식량안보 프레임워크 2015~2025 ASEAN Plus Three Bioenergy and Food Security Framework 2015-2025를 채택했다.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세안+3 비상쌀 비축협정(APTERR)은 역대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1년 서명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아세안+3 지역 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비축미나 정상적인 무역으로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비축된 약정 물량을 판매하거나 장기차관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이다. 이로써 재난 발생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체 회원국 약정 물량 78.7만 톤의 약 19%에 달하는 15만 톤의 쌀을 약정했고 중국은 30만 톤, 일본은 25만 톤, 아세안 10개국은 총 8만 7천 톤을 약정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3 13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미국·러시아 등 총 18개국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역내 전략적·정치적 현안에 대해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는 역내 정책 대화의 장이다. 2005년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는 호주·뉴질랜드·인도를 초대하여 아세안+3 확대 체제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는 미국과 러시아도 참여함으로써 주요 강대국을 포함하는 비중 있는 지역협력체로 부상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연 1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및 국제정세, 그리고 6개 우선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금융, 교육, 조류인플루엔자(보건), 재난 대응, 아세안 연계성 등 6개 우선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10주년 기념 선언’을 2015년 말 채택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은 아세안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완전대화 상대국으로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세안+3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장국은 아세안 국가가 맡으며, 하반기 아세안 정상회의와 맞물려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외교·에너지·환경·경제·교육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개최된 외교장관회의와 2007년부터 개최된 에너지장관회의, 2011년부터 개최된 외교장관회의 그리고 2013년부터 개최된 경제장관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개최된 환경장관회의와 2012년부터 개최된 교육장관회의는 2년마다 열린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현재 아세안 10개국, 대화상대국 10개국, 기타 7개국(파푸아뉴기니·몽골·북한·파키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스리랑카) 등 총 27개국이 정치·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높임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간 다자안보체이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에 걸맞은 아·태 지역의 안정적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해 1994년 출범하였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안보 현안에 대해 회원국 간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 구축, 투명성 제고,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역내 다양한 도전과 안보 위협의 극복을 추구한다. 그동안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분쟁 사전 방지 등 예방외교의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는 또한 테러·초국가범죄·해양안보·사이버안보·재난구호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 등 새롭게 부상하는 초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의 운영과 발전에 있어 아세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고 의사결정체인 외교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SOM는 각각 연 1회씩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회기간 지원그룹 회의가 실무급에서 연 2회, 4대 분야(테러·초국가범죄·해양안보·사이버안보·재난구호) 회기간 회의가 매년 개최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세부 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자회의가 활성화되어 있다.

ARF Concept Paper

1995년 채택된 ARF Concept Paper는 ARF의 발전을 '신뢰 구축 조치 증진, 예방외교 개발, 갈등 해결 메커니즘 개발' 3단계 과정으로 설정했다. 현재 ARF의 발전 단계는 신뢰 구축에서 예방외교로 전환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RF와 북한

한국은 창설 회원국으로 제1차 회의부터 참여해 왔으며 북한은 23번째 회원국으로 2000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한반도와 ARF

ARF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함께 가입되어 안보를 논하는 자리로, 한반도 문제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ARF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대외문제에서 중립 원칙을 갖는 아세안의 특성과 평화적 신뢰 구축을 통한 예방외교를 추구하는 ARF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역내의 신뢰 구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다국적 재난구호훈련 ARF Disaster Relief Exercise, ARF DiREx

아세안 회원국 간 재난구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합동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국·태국 공동 주최로 제3차 ARF 재난구호 훈련이 2013년 5월 태국 차양에서 실시되었으며, 2015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제4차 훈련을 실시했다.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

아세안의 장관급회의는 아세안의 실질적 협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 분야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가장 늦게 협력이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 개최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제2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미국·러시아 등 8개 대화상대국과 함께 역내 안보와 국방 협력을 모색하는 확대국방장관회의가 제안된 후, 2010년 제1차 확대국방장관회의가 열렸으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구체적 협력 분야로 해양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평화유지 활동, 군의료를 선정하고 각 분야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인도적 지뢰 대책을 추가했다. 2013년 이후 각 사안에 대해 여덟 차례에 걸쳐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2016년에 인도적 지뢰 대책과 평화유지 활동, 해양안보 및 대테러 훈련, 군의료 및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의 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허브, 아세안

20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은 단일시장, 단일생산기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균등한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수용하는 개방적 지역협력 모델이다. 아세안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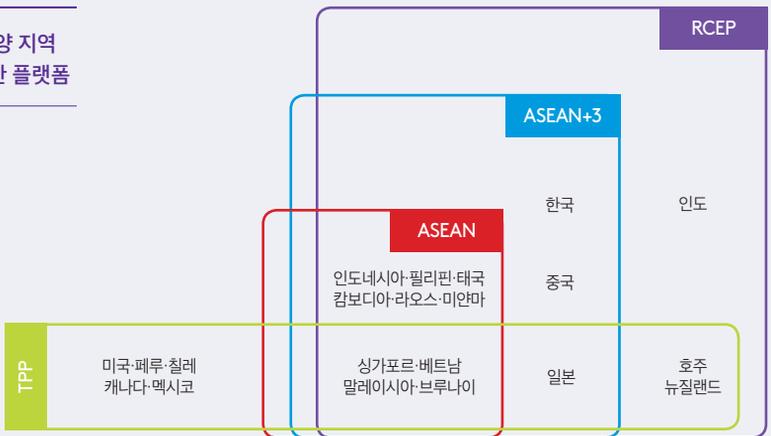
역내 자유무역협정: RCEP와 TPP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와 각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기존 역내 FTA는 아세안을 허브로 체결되었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제안했다. 2012년 11월 아세안은 공식적으로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와 협상을 개시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34억 인구의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포괄하는 협정이 될 전망이다. 2015년 목표 시한을 넘겼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협상 과정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지리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2015년 11월 협상이 타결됐다. 아세안 회원국으로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2일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위한 플랫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주요 지표 (2016)

-  면적
-  인구
-  언어
-  수도
-  화폐
-  GDP(억 달러)
-  1인당 GDP(달러)

아세안 개관

- 인구** 약 6억 4,000만 명(세계 3위)
- 면적** 448만 km²
- 경제규모** GDP 2조 6,000억 달러(전 세계 총 GDP의 3.2%)
- 교역량** 2조 2,700억 달러(전 세계 교역량의 7%)
(수출 1조 1,800억 달러, 수입 1조 800억 달러)
-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사무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MYANMAR 미얀마



-  676,577 km²
-  5,240만 명
-  미얀마어
-  네피도
-  쾃(Kyat)
-  653
-  1,246

THAILAND 태국



-  513,120 km²
-  6,890만 명
-  타이어
-  방콕
-  바트(Baht)
-  3,957
-  5,737

CAMBODIA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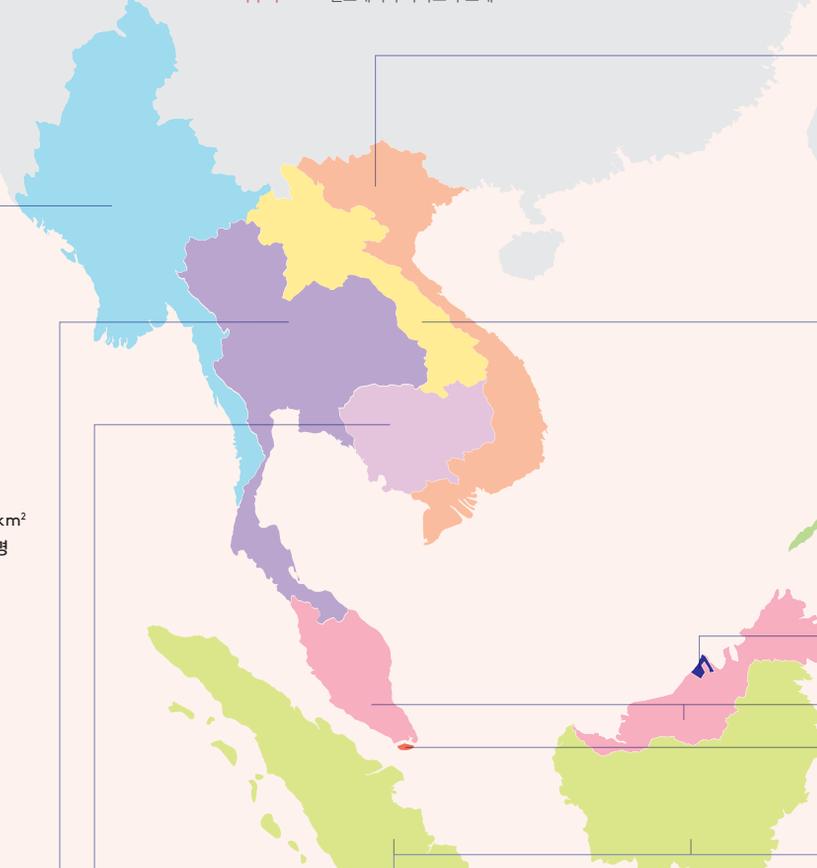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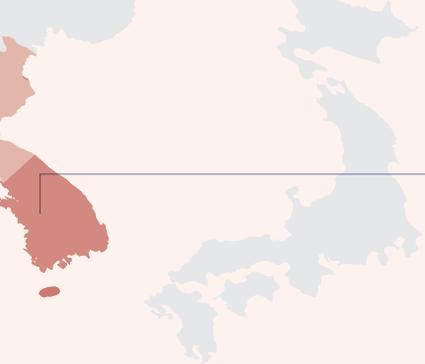
-  181,035km²
-  1,540만 명
-  크메르어
-  프놈펜
-  리엘(Riel)
-  184
-  1,198

INDONESIA 인도네시아



-  1,913,579 km²
-  2억 5,500만 명
-  인도네시아어
-  자카르타
-  루피아(Rupiah)
-  8,576
-  3,357





KOREA(SOUTH) 대한민국



- 96,920 km²
- 5,000만 명
- 한국어
- 서울
- 원(Won)
- 1,376.87
- 27,513



LAO PDR 라오스



- 236,800 km²
- 690만 명
- 라오스어
- 비엔티엔
- 킵(Kip)
- 126
- 1,831

VIETNAM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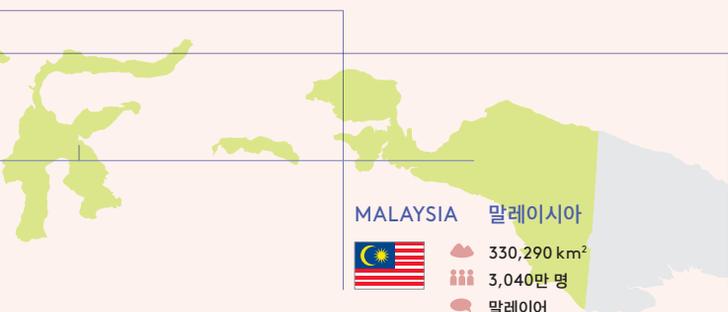


- 330,951 km²
- 9,070만 명
- 베트남어
- 하노이
- 동(Dong)
- 1,934
- 2,109

PHILIPPINES 필리핀



- 300,000 km²
- 1억 150만 명
- 타갈로그어·영어
- 마닐라
- 페소(Peso)
- 2,895
- 2,850



BRUNEI 브루나이



- 5,769 km²
- 41만 7,000명
- 말레이어·영어
- 반다르세리베가완
- 브루나이달러(B\$)
- 129
- 30,942

MALAYSIA 말레이시아



- 330,290 km²
- 3,040만 명
- 말레이어
- 쿠알라룸푸르
- 링깃(Ringgit)
- 2,943
- 9,657

SINGAPORE 싱가포르



- 719 km²
- 550만 명
- 영어·중국어·말레이어
- 싱가포르
- 싱가포르달러(S\$)
- 2,919
- 52,744

연혁

아세안의 발전 연혁	연도	한·아세안 관계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5개국이 아세안 창설 (아세안 선언, 일명 방콕 선언 채택) 	196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기금 창설 	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아 평화·자유·중립 지역선언(ZOPFAN)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 협력선언 I 채택(Bali Concord I)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체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아세안 사무국 설치 	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대외교장관회의(PMC) 정례화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루나이 가입 	1984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부문별 대화관계 수립(11월)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협력기금 신설(100만 달러)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승격(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 합의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협력기금 200만 달러로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창설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창립회원국으로 가입(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아비핵지대화(SEANWFZ)조약 체결 베트남 가입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비전 2020 채택 동남아비핵지대화조약 발효 라오스·미얀마 가입 제 1차 아세안+3 정상회의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12월, 쿠알라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노이 행동계획 채택(1999-2004)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캄보디아 가입(아세안 10개 회원국 완성)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 추진 합의 아세안 협력선언 II 채택(Bali Concord II):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 형성 목표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엔티엔 행동계획 채택(2004-2010): 아세안 개발격차 해소와 통합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공동선언 채택(11월, 비엔티엔)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출범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한·아세안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한·아세안 협력기금 300만 달러로 증액

아세안의 발전 연혁	연도	한·아세안 관계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공동체 설립 가속화에 대한 세부선언 채택(아세안 공동체 2015년 출범 목표) • 아세안 헌장 서명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 체결 (11월, 싱가포르) • 한·아세안센터 설립 양해각서 서명 (11월, 싱가포르) •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헌장 공식 발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에 관한 후아힌 선언 채택 •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 2단계 실행계획 승인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6월, 제주) • 한·아세안센터 출범(3월, 서울)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발효(5월)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발효(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인권선언 채택 • 아세안 연계성에 대한 마스터 플랜(MPAC) 채택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및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1-2015) 채택 (10월, 하노이) • 한·아세안 협력기금 연간 500만 달러로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세계적 공동체 속의 아세안 공동체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Bali Concord III)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10월, 서울), 한강 선언 채택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아세안대표부 신설(9월, 자카르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공동체 Post-2015 비전 채택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아세안 연계성조정위원회(ACCC) 회의(6월, 발릭빠뻬)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5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아세안 공동체 출범에 관한 내피도 선언 채택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개최, 행동선언(2015-2017) 채택(7월, 서울) •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12월, 부산) • 한·아세안 협력기금 연간 700만 달러로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공동체 출범 	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 채택 (9월, 라오스 비엔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50주년 • Visit ASEAN @50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 한·아세안 관계 조망 국제회의 개최(8월, 서울) •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9월, 부산) • 아세안문화원 개원(9월, 부산)

약어

ACC	ASEAN Coordinating Council 아세안 조정이사회	ALAWMM	ASEAN Legal and Law Ministers Meeting 아세안 법무장관회의
ACCC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	ALMM	ASEAN Labour Ministers' Meeting 아세안 노동장관회의
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	AMAF	ASEAN Ministers' Meeting on Agriculture and Forestry 아세안 농림장관회의
ACSC	ASEAN Civil Society Conference 아세안 시민사회 컨퍼런스	AMCA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 Arts 아세안 문화예술장관회의
ADMM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AMM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	AMMDM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AEM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AMME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Environment 아세안 환경장관회의
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 아세안 서비스협정	AMMST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아세안 과학기술장관회의
AFMM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아세안 재무장관회의	AMMTC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아세안 초국가적 범죄 장관회의
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ASEAN-Korea Forest Cooperation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AMMSWD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아세안 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
AFTA	ASEAN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MMY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Youth 청소년 이슈에 관한 아세안 장관회의
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AMRI	ASEAN Ministers' Meeting Responsible for Information 아세안 정보장관회의
AHA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아세안 재난관리센터	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AHMM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IA	ASEAN Investment Area Council 아세안 투자지역이사회	APF	ASEAN People's Forum 아세안 시민포럼
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아세안 정부간인권위원회	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AIPR	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아세안 평화화해조정기구		

APT	ASEAN Plus Three 아세안+3(한·중·일)	EAF	East Asia Forum 동아시아 포럼
APTCF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Fund 아세안+3 협력기금	EALAF	East Asia-Latin America Forum 동아시아·남미 포럼
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3 비상쌀 비축	EAS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EASG	East Asia Study Group 동아시아연구그룹
ARF DiREx	ARF Disaster Relief Exercise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재난구호훈련	EAVG	East Asia Vision Group 동아시아비전그룹
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강 유역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IAI	Initiative on ASEAN Integration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
ASED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아세안 교육장관회의	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회의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전문직 상호인증제도
ASM	ASEAN Summit Meeting 아세안 정상회의	NEAT	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동아시아 네트워크 싱크탱크
ASMB	ASEAN Sectoral Ministerial Bodies 아세안 부문별 장관회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TF	ASEAN Tourism Forum 아세안 관광포럼	SEANWFZ	South East Asian Nuclear-Weapon- Free-Zone 동남아비핵지대화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 물품무역협정	SEOM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고위경제관리회의
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관리회의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차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SOMCA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Culture and Arts 아세안 문화·예술 고위관리회의
COCI	ASEAN Committee on Culture and Information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	TAC	Treat of Amity and Cooperation 동남아우호협력조약
CP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상주대표위원회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SOs	AS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아세안 시민사회조직	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평화·자유·중립 지역선언

참고문헌

- 김승섭. 2010. 「'ASEAN 항만 인프라 개선방안' 설명회 : 아세안 2020년까지 57개 컨부투 32개 일반 부두 개발 필요」, 『해양한국』(<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
- 김우호. 2009. 「아세안의 성장과 역대 해운시장 진출의 시사점」, 『해운과 경영』 제4호, 1-6.
- 김태일. 2006. 「동남아 해운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56호, 57-67.
- 김형중. 2013.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 :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7-202쪽.
- 김형중. 2014.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PSC)의 이슈와 전망」,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동남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 : 국가 단위 對 지역 단위』, 한국동남아학회 춘계학술제 발표집, 9-22쪽.
- 박사명. 2014.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공동체」, 『동남아시아 연구』 24권 3호, 1-44쪽
- 배기현. 2015. 「아세안 연계성의 정치」, 『국가 전략』. 세종연구소(제21권 1호).
- 윤진표. 2012. 「제16장 ASEAN의 외교정책」, 『현대 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419-450쪽.
- 이재호. 2017. 「아세안 연계성 최근 논의와 향후 전망」, 『KIEP 아세안 브리핑』. KIEP-주아세안대표부 공동발간(제17-01호).
- 최경희 외. 2011. 『동남아 역내-외 갈등 구조와 한국의 외교전략』 (2011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 최경희. 2014. 「ASEAN 연계성 프로젝트와 해운-해상 물류 연계성」, 『동남아 이슈페이퍼 통권 7호』, 서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지식정보센터 신흥지역연구단.
- 홍석준. 2005.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 『해양정책 연구』 제20권 1호, 1-29.
- ACMECS Action plan highlights transport and tourism, Nation March (2013. 3. 13)
<http://www.nationmultimedia.com/aec/Acmecs-action-plan-highlights-transport-and-tourism-30201860.html>
- APA Newsletter. November 2013. (<http://www.aseanportsassociation.org/>)
- ASEAN. 2009.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 ASEAN. 2009.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 ASEAN. 2009.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 ASEAN. 2010.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Jakarta:ASEAN Secretariat.

- ASEAN. 2013. ASEAN Annual Report 2012-2013: On Track to ASEAN Community 2015. Jakarta: ASEAN Secretariat.
- ASEAN. 2013. The ASEAN Charter. (15th Reprint). Jakarta: ASEAN Secretariat.
- ASEAN Foreign Ministers'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Adopted by the 49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Vientiane, 24 July 2016.
- ASEAN. 2015.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Jakarta: ASEAN Secretariat.
- ASEAN. 2015.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ASEAN Secretariat.
- ASEAN. 2015.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ASEAN Secretariat.
- ASEAN. 2015.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ASEAN Secretariat.
- ASEAN. 2015.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Jakarta: ASEAN Secretariat.
- ASEAN. 2015. The ASEAN ICT Masterplan 2020. Jakarta: ASEAN Secretariat.
- Biswa Nath Bhattacharyay. 2010. "Institutions for ASIAN Connectivity."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Economics and Policy*, Vol.1, No.2, 309-335.
- ERIA. 2012. Mid-Term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AEC Blueprint.
- Joint Communique of 46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Bandar Seri Begawan, Brunei Darussalam, 29-30 June 2013).
- "Partnering for Change, Engaging the World." Chairman's Statement 30th ASEAN Summit. 2017. (Manila, 29 April 2017).
-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EAN Logistics Connectiv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rganized by Transportation Institute, Chulalongkorn University July 30-31, 2013, Bangkok, Thailand.
- Single shipping market as a pillar of ASEAN economic integration: Stakeholders Discussion on ASEAN Single Shipping Market (2012. 5. 15)
- S. Rajaratnam, "ASEAN: The Way Ahead", in *The ASEAN Reader*,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1992.
<http://www.mima.gov.my/mima/single-shipping-market-as-a-pillar-of-asean-economic-integration/>

Thanat Khoman, "ASEAN Conception and Evolution", in the ASEAN Reader,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1992.

Togar M. Simatupang. 2013. "The Role of Archipelagic Countries in ASEAN Logistics Connectiv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EAN Logistics Connectiv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3. 155-178.

Vientiane Declaration of the Fifth 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Summit.
<http://www.asean.org/news/asean-statement-communiques/item/vientiane-declaration-of-the-fifth-ayeyawady-chao-phraya-mekong-economic-cooperation-strategysummit>

참조 사이트

ASEAN 사무국
www.asean.org

IMT-GT 홈페이지
www.imtgt.org/About.html

대한민국 외교부
www.mofa.go.kr

ASEAN-Korea Centre
www.aseankorea.org

ASEAN-Japan Centre
www.asean.or.jp

ASEAN-China Centre
www.asean-china-center.org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센터

The ASEAN-Korea Centre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ndated to promot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It was officially inaugurated on 13 March 2009, the year that marke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ialogu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한-아세안센터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을 맞은 2009년 3월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July 2017

Published by ASEAN-Korea Centre

8th fl. Press Center Bldg., Taeyeongno 1ga,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100-750

Tel : +82-2-2287-1115-6

Fax : +82-2-2287-1160

Email : info@aseankorea.org

Website : www.aseankorea.org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초판 1쇄 펴낸날 2014년 11월 1일

개정판 1쇄 펴낸날 2017년 8월 22일

엮은이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부
펴낸곳 한-아세안센터 외교부
책임편집 유진숙·이수지·김수정
글 김형중(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최경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8층)
전화 02)2287-1140
팩스 02)2287-1160
이메일 info@aseankorea.org
홈페이지 <http://www.aseankorea.org>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아세안센터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ISBN 979-11-88409-01-3 03340



Visit Asean@50
GOLDEN CELEBRATION 2017



ASEAN-ROK
CULTURAL
EXCHANGE
YEAR 2017

9 791188 409013 03340
ISBN 979-11-88409-01-3